

<2024년 11월 6일 수요말씀>

(속) 자기 신앙
누구나 행한 대로 된다

본 문 :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속편 말씀, ‘누구나 행한 대로 된다’ 라는 주제로
주일에 이어 말씀하니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듣겠습니다.

◎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삶의 이치를 정하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하고 선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도 행치 않는 자는 죽은 자다.’ 하였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온전히 해야 온전히 되고, 안 하면 안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행하면 행하는 그 분야에서, 그만큼은 이루고 얻는 것이다.

그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나.

믿는 자가 행하면, 육도 영도 잘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영이 구원받는다.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산 자는 육도 영도 형통한다.
영과 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믿지 않은 자는 육도 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육신이 죽어도 그 영과 혼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여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다.

(마 25:11-12)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 뜻대로 안 한 자는

육도 잘 안되고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았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할 일을 하고 산 자는
그 행위대로 잘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온전하게 사는 대로, 행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잘못하면 안되고
 안 믿어도 제대로 하면 잘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하고 그의 뜻대로 살면

<육>도 하나님 축복받고

<영>도 구원받고 의로운 행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세상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부자, 재벌도 되고 잘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저들만큼 안되었냐?” 라고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영과 육에 해당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들은 세상 일을 전적으로 많이 해서
 육이 잘되었다.

믿는 자들은 그만큼 신앙 일만 하고 육의 일을 행치 않아서
 그들만큼 안 되었다.

하나님을 믿어도 조금 일하면 그만큼만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많이 일하면 그만큼 많이 얻는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 믿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서
 거기에 대한 축복을 육과 영이 받고 살게 된다.

만일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육도 영도 얻는 것이 없다.

○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되게 하셨다.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축복을 바라지만 말고, 믿고 행하여라.
자기 행위대로 한 만큼 받는다.

하나님을 믿어도 행해야 얻는다.

믿음만으로 못 얻는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았느냐.

○ 믿어도 믿은 것을 행해야 얻는다.

하나님과 주를 믿는 데도
잘되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어 즐겁게 하고,
행위로는 힘들고 고통을 받으니 행치 않아서다.
그래 놓고 오래 믿어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믿고 사랑받고 살아도
할 일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
무엇이든 해야만 된다.
행해야 돈도 벌고 원하는 것이 얻어진다.

○ 하나님, 성령, 주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더 힘을 얻고 행하여서 얻으려고 믿는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놀고 끝난 것이다.

복을 주셨어도 행한 것만 얻고 누린다.
내 말함을 깨달았느냐.

○ 월명동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행하여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하나님 전을 만들어 얻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사랑하고 살아도
 행할 것을 행해야 얻고, 사랑도 받는다.

○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해야만 받을 것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은 행해야 얻는 육의 세상이다.
 고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은혜와 힘을 받아 행하여 얻어라.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종일 사랑하여
 낙을 누려도
 사랑받고 살아도
 육이 행할 일은 육이 행해야 얻는다.

○ 물론 하나님 성령을 사랑만 해도 그것도 일이니
 그 대가를 하나님은 주신다.

사랑하는 것도 일이다. 그것도 행한 대로 받는다.
 사랑만 해도 그 대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축복도 받는다.
 사랑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이다.

○ 누구나 저마다

- 자기 정원에 나무를 갖다 심고 돌을 갖다 세우지 않으면
 정원이 꾸며지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를 않는다.

- 사랑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치 않으면
마음만 기쁘고 끝나는 것이다.
- 글을 한 자 틀리게 써 놓고 마음으로 그것을 고쳐 보아라.
평생 못 고친다. 행해야 고친다.

○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을 행해야 얻는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해 놓고,
그것 쓰면서 보고 즐기는 것이다.

행해야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다.
그가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안 믿어도 믿는 자보다 잘된 것은
고생돼도 할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믿는 자들은 기뻐 좋아 살기만 하고
하나님께 구상 받고 행하며 살지를 않아서
노는 것으로 끝났다. 얻은 것이 없다.

사랑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얻는다.
조금 하면 조금 얻고, 많이 하면 많이 얻는다.

○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종일 일하고 사업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사업을 신상 섬기듯 연애하듯 한다.
그러니 행하여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영·혼·육이 구원받지 못하고 산다.
이것이 폐단이다.

믿는 자는 영과 육으로
하나님 성령 성자 주만 사랑하고 사는 데만 열중하여
영적으로 사랑받고 살아서 신앙의 부자 되어 산다.

행치 않으면 누구나 얻지 못한다.
믿으면서도 행치 않으면 폐단이다.

-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는 많이 행하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행하여서 조금 얻은 것이다.

사람이 많이 행하였다고 하는데, 확인하면 생각보다 조금 행했다.
고로 조금 얻은 것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우리가 믿어도
많이 행해야 많이, 많이 얻는다.

세상의 사업하는 자들을 보아라.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면서 일한다.
그래서 그만큼 얻는다.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은 신앙은 잘하는데
세상 일 하는 것은 조금 하니, 고로 조금 얻는다.

세상의 부자들, 경제인들이 얼마나 그 일을 하는가 보아라.
교회 다니라면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안 믿어도 그들은 그렇게도 경제 쪽으로는 많이 얻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어도

신앙 쪽으로만 행하였으면 신앙 쪽으로만 얻고 신앙의 부자가 된다.

육적인 것도 행해야 얻는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신앙 안에서 너희도 얻는다.

○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믿고 산 자는

육으로 세상 것, 재물 쪽은 많이 행치 못하여 많이 얻지 못했어도
하늘의 것을 많이 행하여서 영원토록 누릴 천국을 얻었다.

어떤 자는 육신 세계에 살 때

육이 영적인 것도 하고

육적인 것도 행하여서 두 가지를 얻고 산다.

얼마나 그들이 하였나 생각해 보아라.

모두 자기 행위의 대가다.

○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살았다.

육적인 일을 많이 해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서 행하지를 앓았다.

고로 깨우쳐 주려고 레바논 백향목,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하신 것이다.

(겔 31:3-9) “볼찌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달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
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
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
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 믿어도 영과 육으로 행하여야 두 가지 다 얻는다.

한 가지만 얻으면 곤고하다.

영적으로만 살면 육적 곤고가 오고

육적으로만 살면 영적 곤고가 육도 영도 온다.

양쪽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전적으로 영의 일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육의 것들을 축복해 주셨다.

행한 대로 축복을 해 주셨다.

지나치게 하지 말고 좌우로 공평하게 행하여라.

○ 우상을 섬겨도 그들은 재물을 얻으려 행해서 얻는다.

다만 하나님과 주를 믿지 않아 영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믿어도 무신론자들도 재물을 얻으려 행하면 얻는다.

그들도 행치 않으면 못 얻는다.

행하는 만큼 얻는다.

천 명이 기도하면서 종일 원해도

해당하는 일을 행치 않으면 안 이뤄진다.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것을 행하면 얻는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얻으려고, 행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 어떤 것은 기도만 해도 이루어진다.

기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행하신다.

자기의 것도 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고 행할 것은 자기가 행해서 얻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어 얻는다.

○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 일도 행하여서

부자도 되고 세계 재벌이 된 자도 많고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같은 사명으로 주셨다.

○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개인도 가정도 섭리사도 나라들도 그러하다.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 행함의 지혜다! 하면 얻는다!

미련한 자라도 하면 얻고,

지혜자라도 행치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랑치 않아도 먹으면 배불리 산다.

하나님은,

“행함의 이치를 깨닫고 나를 믿어도 자기가 행하여라.
행하는 복이다.” 하셨다.

- 하나님 성령 주를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도 일이다.
그로 인하여 일한 대로 얻는다.
성경에 행한 대로 갚아 준다고 하였다.

(마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 예수님이 선생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
“책상 위에 물건 없어 놓고 행치 않고 물건 옮겨 보아라.” 하셨다.
일주일이 가도 안 되었다. 그대로 있었다.
행하니 바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이같이 세상은 행해야 얻는다.” 하셨다.
그러므로 고생돼도 행하며 살았다.

행한 것만 이루어진다.

때를 따라 절대 행하여라.

- ◎ 하나님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로 주신다.
그중에 하나는 행할 일 행하도록 감동 주어 행케 하여 얻게 하신다.
기도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행하여라.
확인하고 분별하고 행하기다.

혼자 행할 것과 같이 행할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성령과 하나님과 주와 행하여라.
이것을 알고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한다.

이를 알게 해 주신 하나님 성령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